

경제

광양만권에 일본기업 몰려온다

대지진·원전 사고 이후 생산기지 옮겨

기계·자동차 부품 등 입주문의 30여 건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일본 기업들이 광양만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2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진 안전지대인 광양만권에 생산기지를 확보하려는 일본 기업들의 입주 문의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오사카 등 태평양 연안지역의 기계·자동차부품 업체들로 입주 문의만 3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정밀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주)엘티아이는 지난 3월

21일 울촌자유무역지역에 6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추가로 14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에이와국도환경(주)도 전남테크노파크에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달 12~13일에는 세츠시토 신용금고 주최로 일본 기업 22개 업체 30명의 대표가 광양만권과 광주 광산업단지를 방문해 투자처를 물색했다. 철관철코팅제 제품을 생산하는 라미네이트공업의 경우 이번 광양만권 발걸음이 내년까지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이달 중에 이들 일

본 기업을 다시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열 계획이며, 2~3개 기업은 투자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들이 광양만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원전사고 장기화에 따른 전력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광양지역은 지난 17년동안 지진 발생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여기에 일본과 거리가 가깝고, 광양항과 광양제철소·여수석유화학단지 등이 밀집돼 있어 연관 기업이 많고 육상수송물 항만 등 물류 장점이 커 광양만권으로 몰리고 있다.

아시아경제협력재단도 광양만권의 경우 자동차와 가전의 핵심 부품인 철강과 플라스틱을 공급하는 제철소와 화학공장이 5분에 위치해 있어

일본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의 최적지로 꼽았다.

이처럼 일본 기업들의 투자문의가 잇따르자 광양경제청은 일본기업 유치에 전담할 '일본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지난 5월 한 달동안 일본 오사카지역에 직원들을 파견해 능력 협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들을 접촉했다. 또 광양항 카페리 취항에 맞춰 일본 물류업체 유치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대지진 사태가 일본 기업들의 공장 해외 이전을 촉발했다"며 "지진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데다 물류의 장점이 큰 광양만권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대서 열린 '잡월드 로드쇼'

IBK기업은행이 전국을 순회하는 '잡월드 로드쇼'(현장 채용박람회)가 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채용창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48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가한 이 행사에는 232명이 현장에서 채용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LG화학 여수에 4910억원 투자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건설

LG화학은 2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수공장 확장 부지에 4910억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규모 5000t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을 건설한다고 공시했다.

LG화학은 다음달 공장 건립공사를 시작해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화학은 이 공장을 통해 태양광산업의 고성장으로 높은 수요 전망이 예상되는 폴리실리콘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회사 측은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계열사 공급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지난 4월 기업설명회에서 2013년 하반기가 폴리실리콘 사업을 시작할 적기라며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통신요금 인하안 어떤 내용인가

기본료 1000원 인하·문자 50건 무료제공 선불·선택형 요금제, 블랙리스트제 도입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에는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문자 50건 무료제공 등 혜택과 더불어 선불·선택형 요금제 활성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 계획이 담겨 있다.

방통위가 이날 내놓은 통신요금 경감 방안은 ▲통신요금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데이터 트래픽 관리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정보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요금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고 단문메시지(SMS) 50건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음성용을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선불 요금을 1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6.3% 내린다. 또 선·후불 요금제 간 번호이동과 데이터 선불요금 도입, 가입·종전 방식 다양화 등도 검토된다.

7월에는 이용자가 직접 음성·데이터·문자량을 선택하거나 조절하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온다. 선택요금제는 사용자가 이용 습관에 맞게 음성·데이터·문자량을 선택해 구성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음

성 위주 이용자는 '음성 300분·데이터 100MB·문자 50건'을, 데이터 위주 이용자는 '음성 100분·데이터 2GB·문자 50건' 등으로 요금제를 직접 만들 수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관리 체계도 지금의 '화이트리스트' 방식에서 '블랙리스트' 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동사들은 자사에 IMEI가 등록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 속에서 사실상 단말기 유통을 독점해왔다. 반면 새로 도입하는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는 이동사가 IMEI 등록이 안된 단말기도 개통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동사, 제조사, 유통업체 간 단말기 판매 경쟁이 일어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등장도 장려키로 했다. 이동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 자연스럽게 요금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하면 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뒤따라 요금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형수기자 exian@연합뉴스

코스피지수	2114.20 (-27.14)
코스닥지수	477.83 (-5.40)
금리 (국고채 3년)	3.57% (-0.07)
원·달러 환율	1080.70원 (+6.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금호타이어 '호주 타이어 테스트'서 호평

'엑스타 LE Sport' 종합3위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용 '엑스타(ECSTA) LE Sport'가 호주 유력 자동차 월간지 휠(Wheels)이 실시한 '2011 타이어 테스트'에서 호평을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2일 미쉐린, 컨티넨탈, 브리지스톤, 던롭 등 총 7개 브랜드가 성능 평가를 받은 이번 타이어 테스트에서 '엑스타 LE

Sport' 제품으로 참가해 총 8개 평가 항목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특히 빗길 제동력 부문 1위, 빗길 코너링과 마른 노면 테스트에서 2위에 올랐다.

휠은 총평에서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브랜드인 브리지스톤과 던롭 등을 제치고 상위권에 오른 것은 무척 고무적인 결과(a great result)"라고 언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일하기 좋은 기업' 광주은행 등 39개사 선정

광주은행과 행남자기, 글로벌광통신 등 광주·전남지역 39개 기업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일 지역의 우수 기업을 알리고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하기 좋은 기업' 32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기존의 기업 규모 중심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안정성과 발전 가능성, 복리후생 등 근무여건, 종업원의 근무 만족도 등 정성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했다.

이번에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광주지역은 에이지광학·글로벌광통신·코셋·광주인탑스·오픈테

크놀로지·에프엔엔·이노셀코리아 반도체사업부·한빛유통도라인·은하·하남전기·뉴모텍·포스포·옵테론·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광주은행·동아병원 등 16곳이다.

전남지역에서는 마린텍·정오엔지니어링·캠포트·와이제이씨·거성이엔지·죽암기계·센테크·달성·행남자기·민들레마을·신성메이저글러브·유한기술·피엔케이·한남세라믹·탁산·라인호·신우산업 제2공장·세광조선·지알캠·미주제강·유림산업·삼우중공업·동아에스텍 등 23곳이 선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제주 수출 유망 기업 위드솔루션 등 45개사 선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양봉환)은 2일 지역 내 수출 성장 가능성이 큰 위드솔루션·파루·인터세이브 등 광주·전남·제주지역 중소기업 45개사를 '올해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광주지역 기업은 울토네스트·위드솔루션·신화라이팅·고려오트론·신진정밀·고려정밀·삼원산업사·뉴바이오·인터세이브·광산하이텍·노보인터내셔널·베스텍·이디에스·YHB·창성정밀·오리온광통신·명신메디칼·한국정밀·케엠사·푸드피아·인아정밀 등 21곳이다.

전남지역은 동신산업·아이시스·

파루·하서산업·다미안·세교·황도명가·한진산업·성원물산·선일물산·정매원농노조합법인·바이오테크·대륙식품·현대엔테크·비엔비정원·해남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에이치씨바이오텍·라인호·봉황씨원·선일텔레콤·레드믹스코리아·왕인식품·디와이테크 등 23개 기업이 포함됐고, 제주지역은 인포마인드가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코트라 등 22개 수출 유관기관으로부터 자금 및 보충, 해외마케팅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가발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 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대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大山프리모가발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대상 수상

오리요리 명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오리

약오리 백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한방오리구이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찜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점심특선

봉선동 월드덕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 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